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비유에 내재된 한국형 신바람 경영

이종기 제주국제대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열매 맺기와, 한국인의 흥의 정서를 기반으로 한 신바람 경영의 열매를 고찰한 내용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기의 근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인의 신바람 정서에 의한 열매 역시,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그 신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열매와 비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신앙인이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실 때에는, 우리들의 신바람이 발현되어, 삶의 현장과 기업 경영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을 나타냄으로, 각 사람이 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요한복음15장, 예수님, 참 포도나무, 리더십, 신바람 경영

I. 서 론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다음의 구절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본 연구에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 5절 말씀을 기초한 열매와, 한국형 리더십의 신바람이 가져오는 열매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바람은 한국기업의 성과 향상에 적합한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 신바람은 한국인의 흥(興)의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 흥의 정서가 가져다주는 성과와,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열매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은 생명이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즉, 흥과 신바람이 미약해질뿐 아니라 종국에는 마른 나뭇가지로 변한다는 말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들의 신바람이 발현되어 기업 경영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을 나타냄으로, 각 사람이 보다더 예수님과 가까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2.1 참 포도나무(15:1)

① 예수는 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요한복음서가 영지주의

와 같은 이교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포도나무가 생명나무에 관한 동양 신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김득중, 1995)

그러나 요한복음의 포도나무가 생명 나무라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나 열매를 살게 하는 근원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요한복음이 구약성서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포도나무가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김동수, 2005).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는 메시아로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통상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로 자주 사용되었다(호 10:1, 렘 2:21, 사 5:1-2).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유로서 포도나무가 사용된 것은 유대교 문서(제2바룩서 39:7;집회서 24:17)와 공관복음(막 12:1-11;마 20:1-16;21:28-32;눅 13:6-9)에서 계속된다. 위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과 유대교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지칭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1,5절). 그의 제자들은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는 '왜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하는 것이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다른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에 대한 견제로써 쓰여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요한 공동체 내의 상황을 인식한다면 예수와 대결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참 메시아 개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의 주장은 경쟁 또는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부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Wright, Nigel G., 2014).

2.2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15:4-8)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4절에서 실제적으로 'μένω' 동사가 처음 등장한다. 여기에서 μένω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 마치 잘못 쓰인 동사처럼 보인다. 원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예수와 제자들, 혹은 청중들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을 은유적인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ultmann은 특별히 ‘거하다’는 단어에 성실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허혁, 1990).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2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석에 있어서는 2절과 다를 것이 없다. 여기서 μένω는 서술되는 즉시, 이 동사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이는 μένω가 ‘본질’로의 역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5절에서 신적 요소의 서술방식인 ἐγώ εἰμι가 1절에 이어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1절에서 언급한 대로 1-4절까지를 하나의 이야기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는 단어들의 구도를 통해 요한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은 뚜렷한 구별과 다름에 대해서 그의 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요소들을 서술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및 하나님의 신적 요소들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 청중에 관한 ‘본질’ 문제에 있어서 정리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본질’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서의 결과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을 위해, 요한은 3절에서 다시 한 번 청중이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절로 인해 청중에 관한 정의가 일어난다. 그러나 4절에서는 다시금 청중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우려는 새로운 우려가 아니라, 2절에서 언급되었던 제대로 된 ‘본질’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1-4절을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본질’에 대한 서술 문구로 인한 극단적인 두 부류의 존재 상태들에 관한 서술이다. “내 안에 있다” 혹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서술표현을 통해 이 제한성의 범주는 둘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혹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것, 혹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범주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항상 요구한다. 이 말은 서술된 대상은 양쪽 모두에 포함될 수 없고, 어느 한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순간 이미 유한유 범주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정의 하는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연속성의 문제이다. 쉽게 말해 가지가 나무로부터 평생을 붙어 있어야 한다. 어느 때는 붙어 있다가 다른 어떤 때는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장해석 측면이 아니라, 신적 요소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되는 명령이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에 대한 관계가 이곳에서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5절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이다. 이 말은 상호 ‘거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메이나테’(μεινατε)라

는 말은 ‘거하다’한 장소에 머무르다’ ‘굳건히 건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그 분과 인격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존재들은 가지처럼 버림받아 말라 버리고 결국은 불태워져 버린다. 따라서 예수 안에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한국신학연구소 역서(1985). Barrett, C. K. 국제성서주석 요한복음2. 316).

그렇다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에게 온전히 내재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는가? 7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15:7b)이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그러나 회당에서 추방을 당하는 상황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보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칫하면 보상의 의미를 ‘자기중심적’ ‘소원성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상이 아니다. 보상의 초점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 구하는 자와 그것을 들어주시는 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예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머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인 것이다(김선정, 2004).

요한복음 기자는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시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15:8). 이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때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바로 로마황제이다. 그러나 그 로마 황제는 모든 대상의 욕구 충족을 허락할 수 없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셔 자신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곧 능력의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이다. 회당 추방의 두려움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아버지인 황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요한 공동체의 아버지가 그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2.3 내 사랑 안에, 내 계명 안에(15:9-11)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의 권고(또는 명령)가 뜻하는 바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곧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15:9). 이 사랑의 관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 내내 성부의 사랑 안에서 거하셨던 것과 똑같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15:8).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성부에 대한 순종이 자주 언급되며 (예를 들어 4:36), 바로 그 순종은 자신의 생명을 인류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일에서 절정에 이른다(10:17-18).

이 사랑이 특이한 것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 사랑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로 응답한다는 것이다. 계명으로 번역된 ‘엔톨레(εντολή)’는 요한복음 2장 9-50절에서 ‘명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계명 준수는 명령에 대한 복종을 뜻한다. 즉 ‘충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에게 충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Wright, Nigel G. (EDT)(2014).

2.4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담론에 대한 요약

요한복음 기록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임을 부인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참 메시아이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혁명적이면서도 유일한 진리의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한 분이 바로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모여 삶을 펼쳐 나가는 기독교공동체 결국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가지들은 회당에 숨어서 양립적인 상태(세상과 예수를 상황에 따라 취하는 회색분자와 같은 사람들)를 유지하는 자들을 거부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외침은 당시 주류 기독교 공동체의 직제화, 교리화 그리고 상하 계급적 구조 등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선지자적 외침’이라고 본다. 이들의 외침은 어떤 새로운 외침이 아니다.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하늘의 진리 그 자체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희생하라 무엇보다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 외침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랐다.

결국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스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을 대중 앞에서 담대히 외친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친구를 구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의 공동체를 보존하고자 노력했던 신실한 무리들이다(15:16). 당시 사상과 문화, 사회 및 종교적 구조에 의해서 희석되고 왜곡된 예수의 말씀을 본래의 의미 그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전하려고 노력했던 공동체 이들은 철저히 예수 중심의 사상을 근간으로 형성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포도나무 비유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인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예수

자신이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가 곧 교회인 것이다.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상은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큼 철저하지는 않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와 제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즉 ‘상호 내재의 원리’와 ‘일치’를 주장한다. 이는 교회의 핵심 즉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횡적 연관성 및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계명, 명령을 통해 종적인 관계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내부 결속력을 철저히 다져가는 모습을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과 생명의 관계 기독교공동체 즉, 코이노니아(koinonia)를 형성하는 교회의 참다운 모델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수와 제자와의 직접적인 상호 내재 원리는 내부 결속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 경영의 신바람에 내재하는, 종업원 신뢰 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5 서번트 리더십

기독교 전통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그 실마리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리더십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성경에서는 지도자의 개념을 ‘머리’라고 했으며, 이 단어의 의미는 왕, 우두머리, 수령, 장관이다. 이 머리는 집의 어른’(출애 6:14), ‘무리 위에 뛰어난 자’(느헤 7:2),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신명 1:15)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때 머리의 의미는 집단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앞서 나가는 지도자상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구약의 지도자는 점차 이스라엘의 국가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리더십의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십 유형

구분	유형	사례	특징
1	방임형	아담의 불순종	모든 것을 인간 개개인에게 맡겨버림
2	징계형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징벌	구약에 등장하는 ‘진노하다’라는 단어 82구절 등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
3	기적형	모세의 출애급	40년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격노케 함
4	율법형	십계명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악을 범함
5	양심 판단형	12명의 사사(웃니엘 ~ 삼손)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백성에게 혼란도 가져다 줌
6	권력형	사무엘을 왕으로 세움	왕권을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을 이끔
7	선지자형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나 권력자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함

이처럼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전통의 리더십 중, 어느 것도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이 요청됨을 시사하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리더십에 주목하게 된다(석창훈, 2020).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의 리더십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서번트 리더십으로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목자로서 양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했고(요한 10:10), 그의 삶과 가르침은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는(마태 20:28) 종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가르침, 계명, 사례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종교 모델로 볼 수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서로 역설적 개념인 servant와 leader가 합쳐진 것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도우며 팀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리더십으로 Greenleaf의 The Servant as Leader(1970)에 소개된 이후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실증적으로 확인되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번트 리더십 연구는 IMF 위기 이후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맞물려 2000년대 초반 관련 서적이 소개되면서 연구가 붐을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전통의 리더십과 신약의 예수님 리더십 속에 내재된 의미와, 서번트 리더십에 내재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섬김의 자세를 연결 지음으로써, 보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리더십과 열매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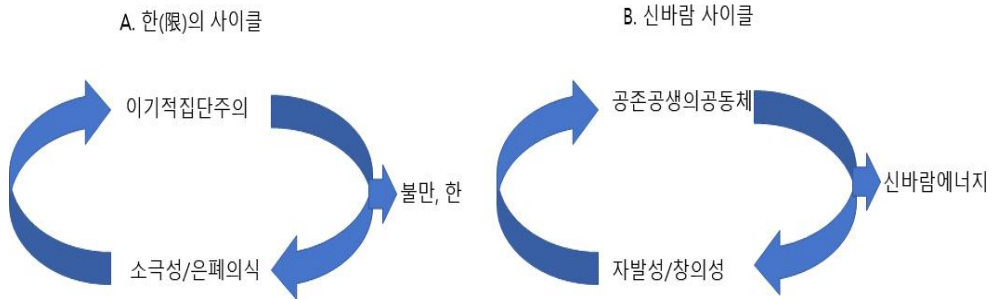
3.1 신바람 경영과 리더십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에 의하면 신바람은 “신이 나서 우쭐 우쭐하여지는 기운”으로 나타나며 신명, 또는 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인은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인간적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일에 몰두하고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속성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과 구성원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일종의 집단적 초능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신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이장우와 이민화, 2000).

이규태(1994)는 신나고 신바람이 난다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 신이라는 것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신이 난다”, “신바람이 난다”에서의 이 “신”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따져지지 않는 사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의 감성적 심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장우와 이민화(1995)는 한의 사이클과 신바람 사이클의 개념적 틀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리하며, 신바람 에너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즉 자발성과 창의성이 신바람을 불러온다고 하였다.



출처: 이장우, 이민화(1995), 신바람 관리: 개념적 모형, 경영학연구 24(5).

한국은 가족적 집단주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데 매우 유리한 입장이며, 이러한 공동체적 조직 질서는 신바람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장우와 이민화, 2000).

3.2 신바람과 편경영

편경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한 경영기법으로 편의 일반적인 의미는 재미, 장난, 놀이, 희롱, 재미있는 것 등으로 표현되며 이것을 개인, 가정 기업에서 사용하기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나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야 편(Fun)이라 말할 수 있다(장은석과 김영배, 2007). 편경영(Fun Management)이란, 기업 종사자와 고객이 모두 즐거울 때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도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매달릴 때 조직의 분위기가 바뀌고 경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이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편경영을 일으킨 사람은 로버트 레버링(Robert Levering) 박사로, “훌륭한 일터(GWP: Great Work Place)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하고, 일의 자부심을 느끼며, 동료와 구성원 간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강봉식, 2013). 아울러 이 편경영의 핵심은, 종업원이 자기주도적이며, 기업전략과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경영진을 신뢰할 때, 즉 정신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때 재미와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3.3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의 리더십 열매 맺기

이 흥의 정서는 우리가 어릴적부터 형성되어 온 것으로, 흥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믿음의 대상이 있고 자신이 그 대상을 신뢰하고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의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린이가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하는 말과 행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대상인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의 행동과 그렇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달라지는 점이다. 반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와 같은 어린이는, 부모님이 옆에 없을 때 하는 말과 행동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믿음이 즉, 믿음의 대상인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와 같은 신뢰와 자신감이 있는 말과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은 생명이 나무뿌리와 나무줄기에 붙어 있지 않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즉, 믿음의 대상과 떨어져 분리되어 있을 때는, 흥과 신바람이 미약해질뿐 아니라 종국에는 마른 나뭇가지로 변한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 “In Christ, Extend the Vision”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상태의 신바람 상태에서 꿈과 비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의 신바람 상태에서 그 어떠한 일들도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아주 부합되는 것이라 본다.

IV. 결론

본 연구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시사하는 점을, 한국인의 흥의 정서를 기반으로 한 신바람 경영의 본질을 살펴본 내용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기의 근본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국인의 신바람 정서에 의한 열매 역시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그 신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인식에서 나오는 열매와 비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을 때와 같이, 즉 믿음의 대상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우리들의 신바람이 발현되어, 삶의 현장과 기업 현장에서 신바람 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 사람은, 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즉 “In Christ, Extend the Vision!”의 자세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봉식(2013). 업무수행 신바람의 선행요인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수(2005). 요한복음의 교회론. 대한기독교서회.

김득중(1995). 복음서 신학. 컨콜디아사.

김선정(2004). 성서의 숨결-신약 5: 나는 포도나무요. 92.

김윤태(2011). 요한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석창훈(2020). 목회용 서번트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

이장우·이민화 (1995). 신바람 관리: 개념적 모형. 경영학연구, 24(5) 339-369.

이장우·이민화 (2000). 생명경영. 김영사.

장은석·김영배 (2007). 펀(Fun) 마케팅으로서 사인디자인 연구. 한국일러스트학회, 109-118.

정충영(2006). 왜 서번트리더십인가. 로고스경영연구, 4(2) 1-23.

Barrett, C. K. 한국신학연구소 역(1985). 국제성서주석 요한복음2. 316.

Bultmann, R. 허 혁 역(1990). 요한福音書 研究. 성광문화사.

Greenleaf R. 강주헌 역(2006). 서번트리더십 : 리더는 머슴이다. 참솔출판.

Hunter J. C. 김광수 역(2015). 서번트리더십. 시대의 창.

Wright, Nigel G. (EDT)(2014). Truth That Never Dies: The Dr. G. R. Beasley-Murray Memorial Lectures 2002-2012. Wipf & Stock Pub.